

Rev. Byeung K. Kim
5/23 Sunday Sermon

2010, 5, 23, 설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The Spirit has made us one.

에베소서 4:1-6

Ephesians 4:1-6

할렐루야! 우리 앞뒤분과 "shalom" 이라고 인사하십시다.

Hallelujah! Let's greet each other with "Shalom".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링포드 교회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성도들이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members of Wallingford church and Seattle Glory church have come together to worship here this morning.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God's blessing is with all of us.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한참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There's a story that takes place during the Civil War.

버지니아의 레파하녹크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The Confederate and the Union armies were about to confront each other at the Rappahannock river in Virginia.

밤이 되어 흐르는 강물 위에는 고요한 달빛만 적막하게 비취고 있었습니다.

It was night, and only the moon was silently shining down on the river.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he soldiers were trembling with fear, and couldn't sleep.

양쪽 진영에는 깊은 적막감만 나돌고 있었습니다.

Both sides were filled with silence.

그런데 한 병사가 적막감을 깨뜨리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Then one soldier started to sing a song to break the silence.

"Home, Sweet Home" 의 노래입니다.

Song,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

The song was Home, Sweet Home

Mid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Be it ever so hu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옆 사람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는 온 진영에 퍼져 나갔습니다.

When he did, other soldiers around him in the camp started to sing with him. Eventually,
everyone in the camp started to sing.

급기야 그 노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상대 쪽 진영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oldiers in the other camp who were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heard this song, and
they started to sing this song, too.

그들은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소리 내어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They were singing throughout the night. They were crying and singing all night.

그러는 가운데 동이 터 날이 밝았습니다.

Finally, the morning came.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느 쪽 진영에서도 진군의 나팔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았고,
그곳에 이상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There was no more order to advance, so there was no more battle there.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들입니다.

Dear members, that's right. Our culture and race may be different but we are one in Christ.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끊으려 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We have an unbreakable bond through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Therefore verse 3 says,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This means that they have a holy duty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Look at verse 1.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Paul was jailed in Rome, and was about to die a martyr. Even then, he advised the members of the Ephesian church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God called the members of the Ephesian church.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It's not because they were better than others. It's not because they had special power.

그들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They were dead in their transgressions and sins, but God still called them.

그런데 우리의 부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It's the same with us. God didn't call us because we were better than others.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Their calling was not justified by their works.

우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It's the same with us. God called us with His grac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That's why in front of God, we have nothing to boast about.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있습니다.

Therefore there are things we should never do in our life of faith.

그것은 나를 내세우는 일입니다. 내 자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We should not put ourselves first, or boast.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어진 사명에 겸손하게 충성하는 모습이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always think about God's grace, and do our duties humbly and loyally

이런 의미 에서보면 어찌면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In that sense, we are already unified in the Holy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are already unified, because we love, comfort, and encourage one another.

이런 우리이기에, 이렇게 월링포드교회 성도님들과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That's why the members of Wallingford church, and Seattle Glory Presbyterian church are worshipping here together with one min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개인적인 신앙생활 중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Sometimes, we have conflicts during our life of faith. We get our feelings hurt.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처럼 내세우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Those things happen because we boast about ourselves, forgetting that we were called by God's grace.

내 세울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nothing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we should be thankful for his grace, and commit to our duties.

이것이 성도로 부름 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That's the right attitude for the people who were called by God.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고 말했습니다.

Paul continues his advice in verse 2.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이유는? 이것만 있으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hat's because only then, we can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그러나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아픔과 시련을 줍니다.

Without that we will end up hurting each other, and have conflicts with each other.

그래서 첫째로 "겸손" 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하나 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we must first humble ourselves, because humbleness is a first step toward unity.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잘났다 하는데서는 결코 하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We have to humble ourselves to be one. We can never be one if we brag or boast.

그래서 나보다도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be humble enough to hold others in reverence. Only then we can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잘난 체 하면서 깔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Dear members, what would happen if the parts of our body ignore each other? It will only bring harm to all of them.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면, 나 역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입니다.

Therefore, if other people are lacking, we should think of what we are lacking.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역할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If we are important, we should know that role of other people is important as well.

둘째는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Second is gentleness. "Gentleness" in bible refers to "Power under control."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감정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내 언어와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 gentle person has power and strength, but does not express his emotions easily, because he has his words and acts under control.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Dear members. Sometimes we get frustrated because of someone. Sometimes, we cry out of disappointment

이런 때라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대에 대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When that happens, we should think of the gentleness of Jesus. We should calm down, and have a warm and gentle heart.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음식을 급히 먹다가 보면 혀를 깨물 때가 있습니다.

Third is patience. Sometimes, we bite our tongue when we eat in a hurry.

한 두 번이 아니고 종종 깨웁니다.

여러분! 이렇다 해서 혀가 화가나 이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It could happen more than once. However, tongue never gets angry at teeth.

그저 혀는 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할 뿐입니다.

It just tells the teeth to be careful.

이렇듯, 우리 몸의 각 지체는 혀에 난 상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합니다.

Just like that, the parts of our body share the pain of the tongue.

그리고 협력해서 혀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They collaborate to heal the wound of the tongue.

눈은 약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발은 걸어가고. 손은 약을 꺼냅니다. 입은 크게 벌립니다.

Our eyes look for medicine. Our feet walk, and our hands take out the medicine. Our mouth opens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혀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Like that they collaborate to heal the wounds of the tongue

서로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모든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All of our body parts are patient, because "there are many parts, but one body."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까지 지셔야했습니다.

Jesus bore the pain of the cross for us.

그러므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refore when we face disappointment or frustration, we need to be patient and bear with it by thinking of the cross

넷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Fourth, we must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우리는 발이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딥니까? 발입니다.

Our feet are the dirtiest part of our body.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발을 배척 할 수는 없습니다.

Even then we can't exclude our feet.

그럴수록 발을 깨끗하게 씻어 닦아 주어야합니다. 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We clean our feet and treat our feet well, because our feet have important roles.

발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몸을 지탱해 줍니다. 걷게 하고, 뛰게 하면서, 우리 몸을 필요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Our feet balance our body. Our feet enable us to walk, and run. Our feet take us to
where we need to go.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시상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A Marathon runner runs with all he had, and wins 1st place.

상을 누가 받습니까? 상은 손이 받습니다. 메달은 머리가 받습니다.

He receives his prize with his hand, and wears the medal around his neck.

그렇다고 발이 불평을 합니까? "야! 뛰기는 내가 뛰었는데 왜 네가 상을 받니? 이리 내!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Even then, his feet don't complain, "It's all thanks to me. The prize is mine, Give it to me"

그러나 만약에 발이 쑥 내밀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 것 입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What would happen if his feet try to stick out to receive the prize? He would not be able
to stand because he will lose his balance.

그래도 발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손이 대신 상을 받고 머리가 메달을 받아도 그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His feet don't mind not being recognized and just rejoice with his hands and neck, because they are one.

이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That is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God accepted us as we are.

이웃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이웃에게 부족하게 보인다 해도, 설령

이웃의 눈의 티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God forgave and loved us even when we hurt our neighbors, or focused on the speck of sawdust of someone's eye.

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We need to have that broad mind.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됩니다.

That's right. To be one in Christ, we just need to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n, we will be able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마지막으로 본문4~6절입니다. "몸도 하나 요 성령도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요 세례도 하나 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Let's look at verse 4-6 of today's text.

Finally

4.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
5.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6.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여기에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These verses explain the basic elements for the unity of the church.

그것은 이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기때문입니다

There is "one body, one Spirit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and One God"

모두 일곱 가지입니다. 완전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7, which is a complete (whole) number.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라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That's right. If the basic elements of the church are one, then us, who are the body parts of the church, are one too.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 이라는 것 입니다.

Therefore, one thing we need to remember is that God is one.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He is the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H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역사의 섭리 자가 되십니다.

And is the owner of History. He is the Guardian of history.

이렇게 창조주하나님시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If we believe in God who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hen we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It is a fact that we became brothers, and sisters in God. Therefore we are one.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Dear members, we are one in Jesus Christ.

하나 된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We, who are one, have duties given to us by God.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duties: evangelizing, missionary works, devotion, and service.

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더 사랑하고,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켜서 함께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We need to love one another, and walk together by encouraging one another.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Then surely God will help us.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친히 주관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God,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will guide and accomplish it

하나님께서서는 창세전에 우리로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He will guide us, because he called us to be one and chose us do His work

사랑하는 여러분! 월링포드교회나 영광교회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 요, 선교도 하나입니다.

Dear members Wallingford church and Seattle glory church are one in Christ- one Spirit, one faith, and one mission

그러므로 한 목적, 한 비전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let's walk together with one purpose, and vision. The Holy Spirit has made us one.